

빛·기억·상상·애도의 서사...국경을 넘어 예술로 피다

5·18 45주년 국제오월특별전 '미래의 숨결, 무등의 오로라'...내달 31일까지 이강하미술관

전 세계 전쟁과 이주, 상흔·희망 아우르는 조형 언어 한자리에
한국-캐나다 작가 5명 참가...경제 넘어선 예술적 메시지 전달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새들의 이미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북극의 기억을 품은 새들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곳 전시장에 자리 잡았다. 이누이트 작가 카버 바우 매뉴미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 속 새의 형상으로 빚어냈다. 옆에 놓인 닝게오시악 애슈니의 돌조각은 북극 지방에서만 채집되는 매끈한 돌에 물새의 생동감을 담았다. 고래를 타고 노니는 새를 그린 새마이유 아커 석의 회화는 차갑고도 신비한 북극 생태계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엮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는 7월31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국제오월특별전 '미래의 숨결, 무등의 오로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 5인이 참여한 공동 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빛·기억·일상·애도'를 주제로 기획됐다. 전 세계의 전쟁과 이주,

상흔과 희망을 아우르는 조형 언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전시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광주-캐나다 간 문화 교류의 연장선이다.

당시 '신화, 현실이 되다' 전시로 인연을 맺은 이강하미술관과 캐나다 북극권 예술단체 '웨스트 바핀 에스키모 코어퍼레이티브'는 이후 3년간 공동협업을 이어왔다.

이누이트 예술가들의 창작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나란히 놓이며,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기억과 애도를 이야기한다.

캐나다 이누이트 작가들의 작품을 지나 전시장 안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정정주 작가의 미디어 설치 작업이 푸른빛, 노란빛을 바다에 흘려보낸다.

LED 조명과 건축 재료를 결합한 '빛나는 도시' 시리즈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연상케 한다. 그 옆 까만 벽면에



정정주작 '빛나는 도시' 연작

전시된 이매리 작가의 작업은 인간의 이주와 역사를 다룬다. 올해 초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선보인 드로잉맵 '7천 개의 별과 약



이매리작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연작 가변설치

속의 땅'과 신문지와 석탄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 '항상상'은 역사적 기억을 증언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와 전쟁의 역사이다'라는 금빛 문구가 새겨진 캔버스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캐나다의 예술 교류를 넘어 오월 광주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더한다.

이전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은 "시민 저마다 광주에 대한 기억이 다르듯, 전시에 참

여한 작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과 연대, 애도의 예술적 방식을 고민해왔다"며 "캐나다 북극에서 보이는 오로라가 광주의 무등산에 비취지는 상상, 그 빛이 머나먼 국가를 넘어 예술적 메시지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4시 전시장에서는 이매리·정정주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 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반복된 일상과 감정의 결, 예술로 잇다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지원사업 전시...19일까지 '일상, 그리다'展·20-29일 '연결의 연속'展

일상의 감정과 내면의 흐름을 섬세하게 풀어낸 두 개의 전시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지원사업' 2·3회차 전시가 오는 2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025 전시공간지원사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시를 오는 19일까지, 20일부터 2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공간지원사업'은 지역 시각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공공예술 지원사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풀어낸 일상과 감정, 내면의 이야기를 시각예술 언어로 담아내며, 관람객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2회차 전시 '일상, 그리다'는 시각예술 작가 6



▲최미경작 '평온'

나다영작 '연결의 연속'

인이 참여한 단체전이다.

일상 속 장면과 감정, 사유의 조각들을 회화 작품 23점에 담아낸다. 전시 기획 단체 '일상의 페이지(ILFE)'는 반복되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하루하루에 주목하며, 이를 예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나치는 풍경, 머무는 공간, 익숙한 대화 속 감정

등 작가들이 마주한 다양한 장면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통해 '공감의 연결'을 시도한다.

3회차 전시 '연결의 연속'은 작가 나다영의 개인전으로, 내면의 기록에서 출발해 외부 세계와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을 설치미술로 시각화한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는 '배지터널 가족'에 담긴 흔적으로 인간 내면의 생명력과 아픔을 표현한다. 작품은 짧은 에세이처럼 구성돼 조각난 감정을 엮은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는 관람자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누리집,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통채색화로 만나는 여름 정취

'한지에 고운 빛' 회원전, 19일부터 광주대 호심미술관

섬세한 한지 위에 담긴 고운 색채와 정감이 올 여름 전시장을 채운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과 소요유클러리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통채색화 회원전 '한지에 고운 빛'이 다시 한 번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7월2일까지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한지에 고운 빛'은 전통채색화 강사이자 서화 작가로 활동 중인 이경자 작가와 그의 지도 아래 활동하는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이 작가가 운영하는 갤러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이름이자 이번 전시 주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인의 취향을 반영한 책거리, 차분하고 단아한 베이지 톤의 기명절지도,



이경자작 '해상군선도'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십장생도와 노안도 등 우리 삶과 정서를 품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수렵도, 해상군선도, 청룡 등의 신영모화는 신비롭고 영험한 세계를 담아낸다. 모란, 새, 나비, 꽃 등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